

지역기업 11곳, CES 2026서 글로벌 기술력 입증



광주·전남 혁신기업 11곳이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기술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26’에서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과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XR(확장현실),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지역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7개 기업이 최고혁신상 1개와 혁신상 6개를, 전남지역 4개 기업이 총 5개 부문

광주 7곳·전남 4곳 ‘CES 혁신상’…엘비에스테크, 최고혁신상

인공지능·디지털헬스·XR·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기술 ‘두각’

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지난해보다 수상 기업이 늘면서 지역 혁신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CES 혁신상’은 주최 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기술력·혁신성·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의 척도로 꼽힌다.

광주에서는 ㈜엘비에스테크가 ‘여행·관광(Travel & Tourism)’ 부문 최고혁신상을 받으며 2년 연속 수상했다. 인공

지능(AI) 기반 차량·보행로 연결 설계 시스템을 통해 이동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스트패스㈜는 개인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신원 확인과 결제를 통합 처리하는 ‘고스트패스 시티플로(GhostPass Cityflow)’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이노디테크㈜(AI 기반 치과 투명교정 솔루션) △㈜인디제이(자율주행차 내 탑승자 안전관리 시스템) △㈜

올더타임(AI 여성안전 플랫폼) △마인스페이스㈜(AI 3D 인테리어 디자인) △㈜답센트(AI 디지털 후각 솔루션) 등이 혁신상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아이아이에스티(인공지능 기반 재난 감지 시스템) △㈜뉴작(XR 공간 컴퓨팅 기술) △㈜고려오토론(혈액 내 암세포 정밀 분석 기술) △㈜터빈크루(드론·스마트폴 기반 산업 모니터링 시스템) 등 4개 기업이 5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특히 아이아이에스티는 AI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 2개 분야에 동시 수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광주시는 CES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상 신청 자료, 글로벌 마케팅, 비즈매칭 등 종합 지원을 진행했으며, 전남도는 기

업별 기술 스토리 구조화, 영문 피칭 자료 제작 등 ‘1대1 맞춤형 수상 전략 컨설팅’을 제공했다.

시·도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현장에 각각 ‘광주공동관’과 ‘전남관’을 설치해 수상 기업을 포함한 지역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제회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광주 기업들이 세계 최대 전시회에서 잇달아 혁신상을 수상하며 지역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 경쟁력을 보여줬다”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창경센터, 페스티벌서
시장·투자 검증 솔루션 성료

(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열린 ‘2025 광주창업페스티벌’과 연계해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장·투자 검증 및 진입솔루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시부스 운영 △시제품(최소기능제품) 소비자 반응 평가 △비즈니스 미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예비창업패키지 부문에서는 수혜기업 4개사가 직접 참여해 ‘시장·투자 검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기업들은 시제품을 선보이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했다. 시민들은 제품을 체험하고 솔직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제품 개선 방향과 시장 진입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 전문가와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사업 모델, 성장 가능성, 후속 투자 및 지원사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조언을 받았다.

초기창업패키지 부문에서는 4개 기업이 ‘진입솔루션’ 및 ‘소비자반응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참여기업들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소개하며, 소비자 반응평가와 VC 미팅을 통해 실질적인 피드백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및 판로 개척 등 향후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경총,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 ‘호평’

80곳 360명 근로자 혜택

현장 중심 고용안정 모델

.....

인센티브 지급·환경 개선

“정착 가능한 일터 만들기”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추진 중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이 현장 중심의 고용안정 모델로 자리 잡으며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광주시와 공동 추진 중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올해 본격적인 지원 실적을 쌓으며 지역 제조업 현장의 고용안정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광주지역 80여개 뿌리기업과 약 360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광주경총은 수행기관으로 일자리도약장려금, 일자리안정지원금, 공동이용시설 개선, 주거비(월세)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을 연계 추진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조·금형·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 등 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 채용 지원을 넘어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복지지원을 병행, ‘정착 가능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한다.

광주경총은 사업 공고 이전부터 하남·진곡·첨단 등 주요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 기업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현장 중심의 운영체

계를 구축했다.

이후에도 참여기업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원금 집행, 시설 개선, 복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일터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광주 뿌리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기술 인력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 연계와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 디지털·IT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본 박람회 참가…시장 진출 발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역 디지털 글로벌브릿지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지역 디지털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활동을 펼쳤다.

진흥원은 일본 도쿄 마쿠하리메세 전시장에서 열린 ‘Japan IT Week Autumn 2025’에 도내 4개 기업과 참가해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Japan IT Week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IT기술 박람회이며, 매년

750여개 기업과 6만여명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글로벌 IT산업의 대표 전시회이다.

글로벌브릿지는 선정평가를 통해 전국에서 총 15개의 기업이 참여했으며, 전남에서는 지에프(권경주 대표/나주)와 아이웍스(김상현 대표/순천), 엑스오(김전일 대표/목포), 터빈크루(전기는 대표/나주) 등 4개 사가 선정돼 국제무대를 두드렸다.

이번 전시회에서 전남 참여기업은 총 80건의 업무협약 상담을 진행했고, 향후

화상회의 등 지속적인 미팅이 예정돼 있어 글로벌 진출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진흥원은 2025년 글로벌브릿지 사업에 3회 연속 선정됐으며, 올해 7개 도내 ICT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마케팅활동을 지원해왔다.

이인용 원장은 “지역 디지털 글로벌브릿지 참가를 통해 전남 지역의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일본 도쿄 마쿠하리메세 전시장에서 열린 ‘Japan IT Week Autumn 2025’에 도내 4개 기업과 참가해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신규 색상 출시

세탁 25kg·건조 15kg 모델 다크스틸·블랙캐비어 추가

삼성전자는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신규 색상 2종을 추가로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신규 색상은 ‘다크스틸’과 ‘블랙캐비어’ 2종으로, 기존 ‘그레이지’와 ‘화이트’에 더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 25kg·건조 15kg 모델은 킹사이즈 이불 빨래도 가능한 대용량이며, 4.3형 액정표시장치(LCD

) 스크린을 탑재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세탁물에 맞는 최적의 코스로 작동하는 ‘AI 맞춤 코스’, 세탁물에 맞게 적정 세제를 알아서 투입하는 ‘AI 세제자동 투입’, 옷감에 맞는 양의 버블로 세탁하는 ‘AI 버블’ 등 기존 제품의 대표 AI 기능은 유지하면서 합리적 가격대로 선보여 출시 직후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김용훈 한국총괄 상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 비스포크 AI 콤보로 올인원 세탁건조기 시장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